<출처: 이코노믹리뷰 2012-7-10>

**[MoneyExpo][가치주에 투자하라]“착한기업, 가치주로 반짝인다” 사회책임투자 앞장서는 기업에 투자**

**가치있는 착한기업에 투자하라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업과 사회의 전략적 관계 설정, 기업 조직의 혁신 등 기업의 비재무적 기회와 위기요소는 미래 투자와 산업의 의사결정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변동성이 큰 장에서의 가치투자가 빛을 발하고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투자한 종목이 장기적 성장가능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치 있는 기업에 대한 일반인의 검증은 사실상 어렵다. 기업 내부에 있는 게 아니므로 내부정보의 접근이 차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기적 성장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착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착한 기업’은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 어떻게 검증할까? 기업이 발표하는 실적 데이터 외에 어떻게 검증하는지가...  
  
기사전문 보기: http://er.asiae.co.kr/erview.htm?idxno=2012070603473212848

<출처: social fund.com 2012-7-18>  
  
**Pros and Cons of Australian Carbon Tax**

    by Robert Kropp

Implemented on July 1st, Australia's carbon pricing scheme imposes a price of $23 per ton on carbon emissions. But some clean energy advocates argue that the policy does not go far enough.

SocialFunds.com -- The official pricing of externalities commenced in Australia on July 1st, when the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Julia Gillard introduced a carbon pricing scheme. The Clea n Energy Legislative Package imposes a price of $23 per ton on carbon emissions. The carbon price will increase by 2.5% per year for three years.

In 2015, an emissions trading scheme will take effect, and the price of carbon will be determined by the market.

During a forum in Perth this week, Gillard said, "It will make a difference of 160 million tons in 2020. That's the equivalent of getting 45 million cars off the road, and I personally have spoken to business people about how they are going to transform their businesses and cut the amount of carbon pollution they generate because it's now priced."

Nathan Fabian, CEO of the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IGCC), said of the policy, "There are many benefits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see in the current carbon pricing policy for Australia. They include the efficiency of using a cap on emissions and a price to reach Australia's 2020 emissions reduction target and the fact that the policy framework can respond to the need for deeper emissions cuts in the future."...  
  
기사전문 보기: <http://www.socialfunds.com/news/article.cgi/3582.html>

<출처: 매일경제 2012-7-10>

**상장사 횡령·배임 방지대책 나온다**

**거래소, 이달초 경영투명성 제도마련 용역**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검사)에서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징역 9년에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도 검찰에서 2000억원대 자금에 대한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사 최고경영진의 횡령ㆍ배임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한국거래소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18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 초 자본시장연구원에 상장사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거래소는 기업의 가장 예민한 부분인 기업 지배구조를 다룬다는 점을 감안해 연구 단계부터 용역을 외부 기관에 맡겼다. 이번 연구는 상장사별 지배구조 분석과 선진국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분석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거래소는 2009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사회책임투자(SRI) 지수를 마련해 공표하며 경영 투명성 확보에 노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상장사 최고경영진의 횡령ㆍ배임 등 도덕적 해이 건수 변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게 거래소 안팎의 평가다. 거래소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제기된 상장사 횡령과 배임 등 문제를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기사전문 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446362>

<출처: 중앙Sunday 2012-7-15>

**기업 재무자산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19% 뿐**

투자에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지속가능투자다. 이 개념의 등장 초기에는 기업이 환경·노동·인권·사회공헌 등 일종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가능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개선되고 주주가치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이 대표적인 사례다. 투자의사 결정을 할 때 투자대상을 재무적 관점에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인권·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 등 30여 개 연기금과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서명하면서 출범한 이래 세계적으로 가장 큰 투자자 네트워크 중 하나로 발전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모두 1036개 기관이 여기에 서명했는데, 이들이 운영하는 자산규모가 무려 30조 달러에 달한다. 골드먼삭스·페미코·KKR 등 유수의 글로벌 투자기관은 물론 국민연금·사학연금·알리안츠자산운용 등 한국의 기관들도 참여...  
  
기사전문 보기: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26829

<출처: 환경일보 2012-7-9>

**환경정보, 기업 투자에 핵심요소로 부각**

**기후변화 피해 급증, 녹색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 탄소정보 공시 요구 대비 통일된 보고체계 필요**

[환경일보] 이민선 기자 = 최근 중구 페럼타워에서 CDP한국위원회 주최로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기후변화 이슈를 반영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기후정보공시위원회(CDSB)를 국내에 소개하고 확산시키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Rio+20정상회의의 주제인 ‘녹색경제의 핵심 경쟁력’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CDP한국위원회 장지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Rio+20정상회의에서는 26개 분야의 합의를 이뤄냈지만 결과물의 이행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녹색경제를 위한 중요한 틀이며 핵심주체로서 기업은 기후변화 정보를 경영에 적용 및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서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의 리처드 새먼스 소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민간이 주체가 돼 모든 활동에서 다자간 협력을 통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은 녹색성장의 리더로서 인정받게 됐으며 이 같은 결과가 국민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발판을 마련하고, 또 다른 선진 사례를 만들어 선두에 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 보기: <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treec=245&r=view&uid=234771>

<출처: 한겨레 HIRI리뷰 2012-7-3>

**CSR이 원칙이라면 CSV는 도구**

**사회책임경영(CSR)과 공유가치창조(CSV)**

이윤기의 <갈매기>라는 소설에는 갈매기를 잡는 방법이 나온다. 항심(恒心)만 가진 소년에게 갈매기는 머리와 어깨에만 날아왔고, 기심(機心)만 가진 소년에게 그 갈매기는 높은 허공을 맴돌았다. CSR(사회책임경영)도 마찬가지다. 항심만으로는 그 성과를 보장할 수 없고, 기심만으로는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항심과 기심, 이 두 마음의 공존과 균형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CSR이다.

최근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 새로운 CSR개념을 내놓은 이가 있어 화제다. 바로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마이클 포터 교수가 주인공이다. 20011년 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를 통해 발표한 ‘공유가치창조’(CSV: Creating Shared Value)가 발단이 됐다.

CSV는 특히 한국 기업들로부터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다. 2011년 포터 교수가 한국을 방문한 이후, CSV 바람은 좀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일부 기업은 과거 수행해 오던 CSR 프로그램을 CSV 관점에서 재검토하는가 하면, 또다른 기업은 CSV라는 용어를 최대한 활용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기도…

기사전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540717.html